

세상살이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습관과 선입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게 모르게 편리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통상적인 규범이 된다.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하게 되는 사회여건의 도움으로 결국 고정관념으로 자리잡는다.

관행

Customs

김인철 / (주)아르키움 건축사사무소
by Kim In-Churl

하나의 고정관념은 시대적 요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익숙한 관행으로서 사회의 불문율로 작용한다. 서로가 서로의 관행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여건속에서 그것은 미풍양속이라 불리어지기도 하며 또한 그 속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 규칙들을 이용하여 안정된 활동을 보장받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적 여건이 고정적이 아니라 변환적이라는 것에 있다. 그때는 그것이 옳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옳다는 변화는 항상있게 마련이다. 특히나 사회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환경에서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가치관이 공존하기도 한다. 새로운 개념과 관습적 개념이 이분법적인 갈등으로 다루게 되면 그로인한 혼란은 수 없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되지만 어쩔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에 합의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기왕의 것을 고집하는 보수와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개혁이 서로를 설득하는 논리를 갖지 못할때는 영원한 평행선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제삼의 힘에 의한 해결로 귀결되고 만다. 옛날의 역사를 참조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온건과 강경, 기성과 신진, 우파와 좌파 등등으로 구분짓는 것 외에도 원칙론, 형식론, 명분론 등등의 논리들도 한없이 나열되게 마련이다. 이도저도 아닌 중도론과 방관론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앞과 뒤를 가리지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만다.

올바른 규칙과 정확한 가치관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삐걱거리고 있는 여건은 원칙적인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잇따른 사고이후에 사회의 각계에서 들고 일어난 문제제기를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 적극적,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몇몇이 뛰어다닌다고 될일이 아닌 것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적인 합의로 받쳐주지 못한 결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인 요구의 무게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의 한계를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자세는 결국 비겁한 모양새를 만들었고, 상황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기왕의 관행에 안주하여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우둔함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통행적인 법이 만들어지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역시 한두번 그래왔던 것이 아닌 우리의 관행이므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인다.

익숙한 우리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의 전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벌어질 것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규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부류, 내용에 대하여 비분강개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는 하여도 나서지는 않으며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류, 규정을 소상히 살펴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빠져나갈 길만 열심히 연구하는 부류,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장사꺼리를 하루빨리 찾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부류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연히 사후약방문격의 뒷북 두드리기

를 위한 회의는 수도 없이 열리게 된다.

어쨌거나 다양해진 현대사회의 여건과 요구를 근대 이전의 단순한 규범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무모하다는 생각을 한다. 법의 체제 역시 단순하며 확일적이다. 수 없는 개별적 사안들을 하나의 규범으로 묶어 뚝뚝 발생되는 모순은 결과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 융통성 부재로 인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관행을 계속 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방법 또한 미시적이다. 나서서 말하는 것마다 한결같이 자신의 경우와 입장뿐이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에도 자기만의 이야기만 있다.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르게 말한다. 결국 결론은 총론이고 원론일 뿐 각론은 만들지 못한다.

구태의연한 원론의 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시점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여서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와 이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다. 기획, 계획, 기본, 실시, 감리, 감독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한계와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제각기 제각각의 경우에 비추어 제각각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가치의 기준이 똑바른지 뒤집어졌는지 비틀어졌는지조차 모를 혼란속에서 무엇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친김에 혼돈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다 보면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 새로운 세상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크게 건축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기 위해 어쩔수 없이 치루어야 하는 과정이 지금이라면 차라리 더욱 격렬한 혼돈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방법일 터이다.